구호부터 마음 회복…국경 넘은 자비 손길

재난시대와 불교 | 해외 재난 구호 활동

한국 불교계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난에도 너와 나의 고통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동체대비 정신으로 자비행을 펼쳐왔다.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무너진 생활 기반을 복구하는 한편, 재난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현희 기자

조계종 긴급구호단

피해 현장 조사로 맞춤형 지원

재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긴급구호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상황과 이재민들의 생활 여건을 조사했으며, 긴급 모금을 통해 실질적인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단장 선일 스님이 올해 8월 발생한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8월 네팔에서 대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자 조계종은 곧바로 긴급구호단을 파견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긴급구호단(단장 선일 스님·총무원 사회국장)은 9월 8일부터 13일까지 네팔 라수와 둔체 지역과 베트라와티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본대 파견에 앞서 9월 5일에는 본대의 지원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선발대를 파견했다. 선발대는 현지 NGO와 함께 피해 현황과 구호 수요를 조사했으며, 9월 8일 본대와 합류해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선발대와 본대를 나눠 사전 조사와 물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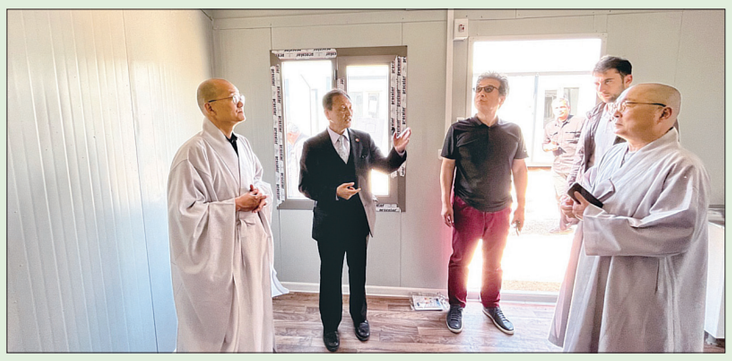
그 결과 둔체 지역 700가구에 쌀과 렌틸콩, 식용유, 과자 등 20일분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고 툴로 바르쿠 마을 150가구에도 생필품을 전달했다. 베트라와티 마을에서는 홍수 잔해를 치우는 데 필요한 철거 공구 등 복구 물품 300세트를 지원했다.

2023년 9월 모로코 지진 당시에도 긴급구호단은 즉시 현장을 찾아 임그달군 150가구에 이중 재봉과 방수 기능을 갖춘 겨울용 텐트를 전달하고 재난에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책가방과 위생용품 500세트를 선물했다.

아름다운동행

일상 회복·생활 기반 복구에 최선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기반 복구가 절실하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은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현지 주민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 후속 지원을 이어왔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하자 당시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왼쪽)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 시설 컨테이너 100동을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23년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 거주 시설인 컨테이너 주택 100동을 지원했다. 튀르키예 주정부로부터 임시 거처 지원을 요청받은 튀르키예한인회와 협약을 맺고 임시 거주처인 '한국마을'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이후 현지 NGO 등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 한국마을에는 56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주택과 공동 세탁실, 보육시설, 강당 등이 조성됐다.

주거 공간을 마련한 뒤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공용 식당 대신 각 가구가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인덕션 370대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건·복구가 더디게 진행돼 주거 환경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을 다시 찾아 이재민들의 생활 터전을 점검했다. 여름철 강한 햇빛을 막을 수 있도록 전체 가구에 철제 차양막을 설치했으며, 올해 7월 4일에는 공용 음수대를 건립했다.

지난해 3월 강진이 발생한 미얀마도 찾아 구호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오지 마을 12곳을 선정해 식료품, 태양광 램프 전달과 관수 시설, 대형 정수기 설치를 도왔다.

로터스월드

피해 주민 만나 위로 · 희망 전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에서 의료·주거 등 인간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 온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재난 현장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물품 전달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지난해 3월 미얀마 지진으로 아내와 누나를 잃은 소모이 씨에게 위로를 건넸다.

로터스월드는 지난해 3월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미얀마 네피도 지역의 피해 주민들을 찾아 긴급구호에 나섰다.

지진 발생 직후 모금을 시작하고 현지 봉사 단체 '포우바뗄렛야'와 함께 피해 지역을 사전 점검했다. 이후 지원이 시급한 지당께 마을과 삔마나 마을을 대상으로 구호 계획을 수립하고 쌀, 식용유, 라면, 돗자리, 의류 등 구호물품 250세트를 피해 가구에 전달했다.

지당께 마을은 해당 지진으로 47명이 사망하고 50가구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가족을 잃고 나무로 급히 지은 판잣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모이 씨를 만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관 스님은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온전히 그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남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로터스월드는 생계와 수행 여건이 어려워진 이웃 불교 국가의 사찰도 지원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남방불교 국가의 탁발·공양이 어려워짐에 따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7차례에 걸쳐 53곳의 사찰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더프라미스

물적 지원 넘어 마음 회복 도와

재난은 주거지와 생계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남긴다. 특히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 변화에 취약한 노인과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가 올해 6월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서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했다. 사진=더프라미스

2008년 설립된 불교계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재난 약자'에 주목해 재난 피해자들의 마음 회복 활동을 돕고 있다.

더프라미스는 올해 6월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AEGIS)'를 파견했다. 이지스는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최대 피해 지역인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이재민 캠프에서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했다.

대피소 생활로 배움과 놀이 공간을 잃은 아동을 위해 이재민 대피소와 학교에 '아동친화공간' 2곳을 운영하고, 3곳의 신설을 지원했다. 아동친화공간에서는 놀이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스케치북, 고무찰흙, 스트레스볼 등으로 구성한 마음돌봄 키트 100개도 전달했다.

지원은 재난 피해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붕괴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수색대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현지 NGO '조나이켈 볼리바르'에는 식재료를 지원했고, 아이들을 돕는 현지 봉사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 워크숍도 진행했다. 재난 약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이어가는 '돕는 이'들의 정서적 부담까지 살핀 것이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로힝야 난민캠프에서도 전쟁 위험에 노출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치유 활동과 정서 회복 강의를 진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